

칭의와 성화와 구원의 정의와 차이

성경말씀: 엡2:8-10

많은 사람들의 혼동: 구원, 칭의, 성화 차이가 무엇이나?

구원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느냐, 일생 동안 이루어지느냐? 구원은 죄지어도 되는 면허인가? 먼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칭의(Justification)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죄인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것, 이 의는 결코 행위로 얻을 수 없다(고후5:17).

그 결과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 법적 조치

죄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재판정에서 죄로 인한 결과들에서 벗어나 무죄로 선포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즉 칭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죄로 말미암은 모든 형벌에서 구조되는 것을 뜻하며 그 결과 당사자는 모든 죄를 용서받고 마치 죄가 없는 자처럼 거룩한 자로 여겨진다.

칭의는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만이 자기를 죄들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일 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

바로 이때 칭의를 통해 얻는 의는 영원하다.

이 의의 기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피, 어린양의 단번 속죄 희생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행위(일)가 없어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롬4:3).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롬5:1).

칭의에는 죄들의 용서와 형벌의 면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를 입어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받는 것도 포함된다.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여기에는 사람의 행위가 조금도 일조하지 않는다. 우리를 무죄하다고 선언하시는 일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는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사역만 보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 스스로 죄를 짊어지셨으며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롬8:1).

우리가 주님을 구원자로 맞이하는 순간 칭의가 이루어지고 이처럼 의롭게 되면 우리에게 전가된 그 의는 우리의 구속자 주님께서 무한대로 완전하신 것같이 완전하다. 칭의는 사람이 얼마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혹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칭의는 단숨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칭의의 선물은 거룩한 삶을 사는 촉진제가 되며 이 일과 함께 양자 삼으심과 양심의 평안과 성령님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생긴다(롬3:20-31; 5:1-21; 8:1-4; 10:4-10; 갈2:16-21; 엡2:4-10).

성화(Sanctification)

칭의를 얻은 성도는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을 시작한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자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그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신분적으로 이미 완전하지만 매일의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 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도 존재하며 그 결과 신자는 점차로 자신의 더러운 본성에서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점도 없이 큰 기쁨과 함께 서게 된다. 이러한 점진적 성화는 죄를 고백함으로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유로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루어진다(요14:26; 17:17; 고후3:18; 7:1; 엡4:24; 살전4:3-4; 5:23; 살후2:13; 히12:10; 벧전1:2; 요일1:7-9).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

성화는 한 마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엡4:13),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형성되는 것

- 칭의는 우리 밖의 힘에 의해서 생기고 그 결과 우리는 의롭다고 선포가 된다. 의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고 판결하시는 것이다. 이후에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짓는다.

- 성화는 우리 내부에서 이루어지며 우리는 의롭게 되어 간다(만들어져 간다). 성화는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이루시지만 우리의 새 사람이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기형 성도

구원과 칭의 그리고 성화

구원: 죄들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인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한순간에 아니면 일생을 거쳐서

예수님의 구원 표현: 다시 태어나야 한다(요3:5).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물에서 태어나는 것(육신의 출생)이 있고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구원: 마귀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겨가는 것

구원은 출생과 같다. 어머니 배 속에서 나오는 것, 나오는 것은 순식간, 일생 동안 낳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곧 칭의를 얻는 것이다.

사람이 태어나면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키가 자라서 사람 노릇한다(벧전2:2).

오래 되어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히5:12-14; 고전3:1-2).

이렇게 자라는 것은 과정이다. 이것을 성경은 성화라고 한다.

즉 죄인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즉시 칭의를 얻어 구원받으며 이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화의 과정이 시작된다.

칭의를 얻어 구원받으면 신자가 된다. believer, saint, 순식간에 발생, 영원한 성도

성화는 다른 말로 제자가 되는 것이다. disciple

구원은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다. 영원히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앉는 것, 행위와 상관이 없다.

성화는 우리의 보상을 결정한다. 행위와 상관이 있다(고전3:12-15).

구원받으면 반드시 선한 행위를 하게 된다(엡2:10).

A. 구원받으면 마음대로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가?

No (롬6:1-2; 살전4:7)

영원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는 없다.

신자와 죄와의 싸움은 평생토록 진행된다(롬7:14-20). 오히려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7:24)

그럼에도 정죄함이 없다(롬8:1).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8:2).

아들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가 온다. 성도도 마찬가지

모든 죄가 나쁘지만 고의로 심각한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망에 이르는 죄(요일 5:16-17). 이런 경우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B. 잘못된 구원 교리: 성화 구원

이것은 성화가 끝까지 이루어져야만 구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행위 구원이다(갈2:16 위배), 저주받은 다른 복음이다(갈1:8-9).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원에 일조할 수 없다. 신구약 모두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사람의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으므로 사람을 기록하신 하나님 앞에 들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최종적으로 심판대에 서서 행위를 재 보아야 그때 구원 여부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죽어 봐야 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요일5:13이 적용되지 않는다. 요일5:12를 보라. 아들이 잇는 자는 구원

여기의 이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분께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원한 구원 등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 결국 행위 구원이 되고 만다.

존 파이퍼 목사님 유튜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잃을 수 있습니까?” 63,000회

“Can a Born-Again Christian Lose Salvation?”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기 행의를 보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구원을 잃는 것은 아닌가?

스펠전의 글

성화(행위)에 포인트를 두게 되면 오히려 평화가 사라진다

내 행위에 눈을 두면 평화가 사라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평화가 임한다

우리는 행위 의인이 아니라 믿음 의인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봐야 한다

우리는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아니기에 행위를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이기에

더 이상 나에게 소망을 두거나 나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율법(행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의 법인 산상수훈을 마음으로, 사랑으로 지키는 사람들이다

열매로 사람들을 알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

그러나 열매조차도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 열매조차도 은혜의 결과일 뿐이다

또한 성화의 열매는 행위에 포인트를 줌으로 맺히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정상적으로 맺히기 시작한다

믿음 의인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아니기에 성화될수록 오히려 자신의 부패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커져만 간다

성화될수록 더욱 가난한 마음, 상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간다

고도로 성화된 자일수록 오히려 자신을 보면 부패함과 무가치함만을 더욱 고백하게 될 뿐이다

많은 신자들이 혼돈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자꾸만 자신의 성화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설령 성자 수준으로 성화되었다 할지라도 자기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거나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믿음 의인의 안식은 결코 그 사람 자신의 성화에 있지 않다

그의 안식과 확신은 자신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의 안식과 확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는 행위 의인이 아니라 믿음 의인이기 때문이다

성도가 구원을 잃을 수 없는 몇 가지 이유

1.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한다(엡2:8-10; 딤후2:14). 행위로 지키지도 못한다.

2.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같다(약2:10). 그러므로 무슨 죄든 죄로 인해 구원을 잃는다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일조하지 못하듯이 우리의

행위는 또한 구원 유지에도 일조하지 못한다.

3. 예수님의 단번 속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속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
4. 구원은 출생이므로 출생이 여러 번 있을 수 없다.
5. 구원은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인데(롬8:14-17; 31-39), 이런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하며 영존하기 때문이다.
6.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에 의해 봉인되어 있다(엡5:30; 고전12:18).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성령님을 이기고 그분의 봉인을 풀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하다.
7. 구원을 잃는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다(요일5:10).

<https://carm.org/justification-and-sanctification>